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브라질 축구문화

이거성

흔히 브라질을 말하면 축구라는 단어가 먼저 연상되고, 축구를 말하면 브라질이 먼저 떠오른다. 월드컵 5회 우승, 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축구와 브라질은 떼어 내려야 떼어 낼 수 없다.

브라질은 세계최고의 축구선수 수출 공장으로 유명한데, 현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100여명의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축구선수 수출 공장이라는 별명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브라질 축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세계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선수들을 보면 “탄력이 넘친다” 혹은 “타고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브라질 속을 들어다 보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은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 브라질에 온지 벌써 횡수로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지역과 축구클럽, 그리고 많은 축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축구 문화가 그 곳의 축구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축구문화라는 것은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브라질에서는 국민



음식점에서 축구를 관람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
(이미지 출처: <http://clickviajar.com.br>)

의 90% 이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고, 응원을 하러 경기장을 간다. 유니폼을 입는 것은 암묵적인 규칙이다. 또한 국내 축구시청률 또한 상당하다. 각종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축구경기가 대부분 축구시청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에는 따로 음식 주문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축구를 시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형성이 축구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한다.

카니발과 삼바로 잘 알려져 있는 브라질에서 노래와 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에너지이고 역사 그 자체이다. 이에 따라 축구장 응원 문화도 상당히 흥미롭다. 다양한 응원가를 기본으로, 브라질 특유의 삼바를 흥겹게 추기도 하고 단체로 춤을 추는 것은 기본이다. 호나우지뉴의 고향팀인 그레미우 팬들의 경우 홈구장에서 골을 터뜨리면 팬들이 운동장 방향으로 우르르 달려 내려가 마치 거대한 파도를 연상케 한다.

또한 브라질 축구팬들은 클라시코(라이벌 팀과의 경기)에서 이긴 다

음 날이면, 승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회사,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물론 진 팀의 팬들은 착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 때문에 브라질 국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구단 유니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경기장에서는 술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니까 좋아하겠지만 질서유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보니 팬들끼리의 마찰로 인해 사망자도 발생할 만큼 위험하다. 어떤 팬들은 경기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팀이 졌을 경우, 경기장을 벗어나는 선수를 폭행하거나, 팀 버스를 훼손시키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하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고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소득 직업 중 하나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라질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위해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성장한다. 어제만 하더라도 필자가 속한 임비투바(Imbituba) 클럽이 공개 테스트를 열었는데, 이 테스트에 지원한 어린이들만 무려 5백 명이 넘었다. 그만큼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청소년들의 열망은 대단하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돈만 바라보며 축구를 하다 보니 성공하고 나서 자기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선수들의 목표는 유럽으로 진출해서 성공하고 월드컵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부분 축구선수들은 명예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충분한 돈을 번 다음부터는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최근 유럽에서 브라질 선수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고 성인 선수보다는 유소년 선수를 더 선호 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유럽 축구에 더 빨리 적응시킨다는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에도 투자를 해, 실력과 인격을 함께 갖춘 축구선수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시장, 혹은 현지에서 규모와 명성이 있는 클럽에



축구 에이전트 조르디 멘데스
(이미지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입단하기 위해서 축구선수들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에이전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브라질 축구를 움직이는 힘은 축구선수가 아닌 축구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다. 브라질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우승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진출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선수들이 해외진출을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시점은 바로 이 월드컵 우승 이후일 것이다. 브라질은 여러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다 보니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문화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자립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

또한 브라질 축구 비즈니스는 포르투갈 축구와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 먼저,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상호간에 선수 매각에 있어서 용이하다. 톱클래스가 아닌 이상은 보통 유럽진출 시 포르투갈에서 유럽축구에 적응한 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 매각한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로 국적을 바꾸어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상당수에 이

른다.

그 중 한 명이 데쿠인데, 그는 브라질 태생으로 브라질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포르투갈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며 포르투갈로 국적을 바꾸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현재 선수생활을 마감한 뒤, 현지에서 에이전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소속된 클럽과도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브라질에서 유망주를 발굴해 유럽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무리뉴 감독의 에이전트인 조르디 멘데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국과는 달리 브라질 축구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데쿠 자신의 명성이라면 혼자서도 에이전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르디 멘데스라는 세계최고의 에이전트와 함께 동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브라질 축구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나 서민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이다.

그렇다면 유소년(6~10세)들의 축구는 어떨까? 특이하게도 이 시기에는 축구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축구화가 없는 경우도 다반수다. 축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풋살 때문이다. 브라질의 거의 모든 사립학교와 규모가 큰 국립학교의 경우 풋살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각 동네의 놀이터에도 풋살 경기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풋살을 즐겨하는 이유는 축구와는 달리 공과 운동장 규격이 작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학교에서는 여자 풋살팀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축구 클럽들의 스카우트들은 유망주를 발굴할 때 풋살대회에서 발굴을 많이 하는 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나우지뉴 또한 풋살을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본인은 브라질 축구의 기술과 순발력 그리고 탄력 같은 그들만의 장점이 바로 이 풋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스카우트들이 유소년을 선발하더라도 브라질 법률 상 14세 이하의 선수는 계약이나 클럽에서 숙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규모가 큰 클럽은 유망주를 데려와서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거나, 그 선수가 적응을 잘 못할 경우에는 가족 모두를 데려와서 집과 생활비 그리고 부모의 직업까지 구해 주며 선수에 투자를 한다.

이런 수순을 마치고 팀에서 계속 살아남아 팀과 계약을 맺게 되면 월급이 일반 성인의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된다. 상파울로 클럽의 경우에는 17세 팀 소속 유소년 선수에게 5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지불하며 치아, 심리, 교육, 발관리 등 특별대우를 해준다. 이런 까닭에 서민층의 부모는 자식만큼이나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선물해 주는 것이 축구공이겠는가.

브라질은 땅 크기만큼 여러 문화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이것은 축구와도 관계가 깊은데, 이탈리아, 독일 이민자들이 많은 히우 그란지 두 술주(州)와 산타 카타리나 주는 파워축구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선수의 실력보다는 피지컬 부분을 많이 보는 편이다. 아프리카계가 많은 북쪽은 타고난 유연성과 탄력 때문에 브라질 특유의 삼바축구를 볼 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명감독은 교육수준이 높은 유럽 이민자의 2,3세대가 많은 편이고, 축구선수는 대체로 북쪽에서 나오는 편이다. 또한 축구선수의 포지션도 각 지역마다 다른데 남쪽에서는 수비수가 많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공격수가 많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 보니 지역에 따라 축구선수들의 성향이 다른 것도 흥미롭다. 북쪽 출신의 선수들은 대체 순수하고 상당히 성격이 밝다. 그래서 팀에 잘 적응하고 선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편이다. 리오데 자이네루 선수들의 경우, 약간 느슨하고 쉬는 것을 좋아한다. 상파울로 지역의 선수들은 비즈니스에 예민하고, 남쪽의 선수들은 파워에 상당



밝은 분위기의 브라질 축구 선수들
(이미지 출처: <http://futmaniacos.futblog.com.br/>)

히 심혈을 기울이고 거친 편이다.

공통적인 것은 브라질 축구선수들은 상당히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감독 중 한 명은 경기 전 선수들의 긴장감 해소를 위해 음악을 크게 틀고 선수단 전체가 춤을 추며 워밍업을 시작하는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다. 물론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이것은 브라질의 문화와도 관계가 있는데, 브라질인은 밝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승패가 갈리는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고 지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한 지인의 예를 들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라이벌 팀의 팬이 바로 친동생인데, 한 번은 두 팀이 맞붙었다.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저서 동생과 한 달간 서로 말을 안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만큼 브라질인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승부가 걸린 일이라면 상당히 진지해지는 편이다.

브라질은 오는 6월 월드컵을 개최한다. 하지만 브라질 현지의 사정은

딱히 월드컵을 개최할 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제 일자 신문에는 FIFA 월드컵 조직위원장이 월드컵 개최도시 중 하나인 쿠리치바의 준비 미흡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왜 본인이 사는 도시를 제외하지 않느냐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사실 월드컵을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드컵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브라질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전에 따르면 문화의 정의는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 브라질 축구의 모든 것이 축구 문화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승되어 온 그들만의 축구 문화가 브라질축구의 뿌리임에는 확실해 보인다.

이거성 - 브라질 임비투바(Imbituba) FC 수석 및 1군 피지컬 코치